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 제281회 임시회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읍·면 현황을 청취한다.

이번 회의는 군민과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장으로부터 2017년도에 추진할 읍면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안 군의회는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의회차원의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오세웅의장은 공직자들에게 3월은 영농준비가 한창인 만큼 영농자재 등 각종 보조사업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난 3월 10일 헌병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갑작스러운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만큼 부안군의 현안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방안을 주문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확보에 팔 걷어

국가예산확보 4차 추진상황보고회... 전북도·중앙부처 반영상황 점검

김제시는 23일 이진식 시장 주재로 국소장,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 국가예산확보 4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국비 확보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3차례 걸쳐 발표한 신규사업과 주요계속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전북도 및 중앙부처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용역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예산편성 순기에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또한 사업 필요성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논리 강화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4월이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김제시는 전 부서 일제 출장 기간을 설정하여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기로 하였다.

2018년 국가예산확보 대상 주요사업으로는 지평선산단 폐수중립처리시설(200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311억원)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설치사업(352억원) 새만금특별관 리지역지정 및 현업축사매입(487억원) 용지 산간계 밀집지역 개선사업(335억원)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123억원) 등 총 4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44억원이며 2018년도 요구할 국

비는 763억원이다.

이에 김제 미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선 공약사업으로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첨단 종자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개사업, 4,457억원 규모의 공약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과 연계하여 각 정당에 건의하였다.

이진식 시장은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예산 투입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재원투자를 이끌어내어 시 성장동력 기반 마련의 기초가 되며 중앙부처 예산 반영 첫 삽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김제 미래와 시민 행복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직자의 소명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몫을 다하지"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월 산내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던 정읍 가축시장이 지난 22일 본격재개장했다.

김제시모악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이진식)가 23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여 만에 개최하는 금번 모악회는 2017년을 맞아 21명의 신입 기관·단체장이 교체되었으며, 각 기관·단체장들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로 모색 및 새 만금 중심도시로서의 김제 위상 정립을 위한 기관·단체간 활발한 토론과 함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모악회에서는 고병원성 AI,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 민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호소하며,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공명 추진,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투어패스 카드 애용,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기관·단체 간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기관·단체장과 함께 10만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김제 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모악회는 김제시정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지역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제역으로 중단된 정읍가축시장, 본격 재개장

9일 한 차례 임시 운영...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

지난 2월 산내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던 정읍 가축시장이 지난 22일 본격재개장했다.

정읍 가축시장은 매일 2일과 22일 두 차례 열리는데, 시는 지난 6일 우제류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9일 한 차례 임시 운영했다. 이날 암송아지 40두(최저가 190만원/최고가 351만원), 수송아지 191두(최저가 155만원/

최고가 415만원) 등 총 231두가 출하됐다.

정삼운영일로서는 처음 열린 22일 경매에서는 암송아지(최저가 200만원/최고가 395만원), 수송아지(최저가 120만원/최고가 463만원)와 임신우 및 큰 소 등 총 350두가 낙찰됐다.

모처럼 활기를 띤 가축시장을 찾은 농가들은 "구제역 여파로 경제적 손

실과 함께 일상 생활이 위축돼 힘들었는데 가축시장이 재개장돼 안심된다"며 가축시장 운영 재개를 반겼다.

특히 이날 김제시 시장도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농가들을 격려하고 "구제역이 빠른 시간에 종식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나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한 축산농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 선정

정읍기적의도서관... 활용 도서 등 500만원 보조금 지원

정읍기적의도서관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2017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이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에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과 독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이다.

기적의 도서관에 따르면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중 108개 도서관이 2017년 운영도서관으로 선정됐고, 전북에서는 53개 공공도서관 중 정읍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해 10개의 도서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관에는 강사 수당과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활용 도서 등 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적의 도서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과교동 소재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다스학교 학생들과

올 한해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강사와 사서, 자원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책 읽어 주기 및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견학,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업 종료 후에는 학생들 개인에게 도서를 기증하여 자신만의 책을 가져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운영하는데 이중 2회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체험활동으로 기적의 도서관 구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미술관·박물관 견학, 기적의 도서관 달팽이 인형극 공연도 감상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특히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스학교 학사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다양한 사고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재민 부안 부군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점검

권재민 부안군 부군수는 23일 국도 23호선 영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안전 대 진단 현장행정을 펼쳤다.

국도 23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보안 면 영전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14억 원을 투자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전 사거리는 국도 30호선과 국도 23호선이 교차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주말이면 차량통행이 잦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해의 길 유원지와 자연생태공원, 줄포갯벌습지, 부안힐링타운을 조성해 생태힐링타운으로 토달관광·생태관광과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8년에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2019년에는 갈대역세 복원 및 미로길 조성과 열생식물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2024년까지 철새 및 해안 전망대, 자전거 탐방로, 열생식물원 조성, 로컬푸드 체험·판매장 설치,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교월동민의 날 행사 취소 결정

김제시 교월동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에서는 AI 및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오는 4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9회 교월동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동민들에게 행사취소 서한문을 발송했다.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에서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자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교월동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제9회 교

월동민의날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월동민의 날 행사'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에 일촌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출향인 등 1,000여명이 모이는 동민 화합 축제로,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중국 하남성 기예단 곡예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동민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함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00
www.gansanwine.com